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1차 도민참여단 속의토론회'를 열었다. 강다혜기자

삶의 질 향상·자치권 강화 관심

한라컨벤션센터서 도민참여단 1차 속의토론회 열려 도민참여단, 4차례 속의 거쳐 10월 구역 확정안 논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와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행정체제의 성과 분석과 함께 새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내달부터는 실제 어떤 모형을 도입할 것인지, 계층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지난 2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1차 도민참여단 속의토론회'를 열었다.

도민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작업의 큰 축 중 하나다.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운영진의 개편 연구와 함께 도민참여단의 속의, 일반도민 대상 공론화 등 3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행개위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해 이중 동의 절차를

거쳐 도민참여단 300명을 꾸렸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는 이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내달부터는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가 본격 시작되며, 오는 8월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게 된다. 이어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도민참여단은 총 4차례에 걸쳐 속의를 벌인다. 이날 1차 속의토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조별 첫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는 7월 예정된 속의토론회에선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을 논의하며, 10월에는 행정체제 모형의 구역 확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최종 의견서를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 2차 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9월 3차 경청회와 청년포럼을 거쳐, 오는 10월 도민토론회가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공론화 자리에서 도민과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권' 강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 바 있다.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예산과 생활여건 등 '삶의 질' 향상 여부,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치권' 강화 여부였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크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5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외한 4개 대안은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꼽힌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만 80세 이상 장수 수당 지원 제주시 대상자 총 2만명 넘어

제주시에서 장수 수당을 받는 80세 이상 노인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수 수당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신청한 달부터 매월 2만5000원씩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 급여 지급

이 결정되면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11년부터는 지급액을 월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지원 대상은 2만295명으로 지급액은 총 20억2065만원이다. 전선희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탄력'

서귀포여중~서흥동, 동흥동~삼성여고 구간 2.8km·양복 4차로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대체부지 마련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I·III구간(서귀포여중~서흥동, 동흥동~삼성여고)은 2018년 5월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국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2.8km, 양복 4차로 개설되며 총 사업비는 530억원(국비 295억원, 지방비 235억원)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4년에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따라 I·III구간 도로 계획, 현지조사, 도로선형 검토 등 설계 주요방향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II구간(서흥동~동흥동)은 실시설계용역(2017년 5월 17일 착수), 실시설계확인(2020년 6월 5일 완료), 타당성 조사(2021년 10월 28일 완료)를 거쳐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1.5km, 양복 6차로로 개설되며 총사업

비는 600억원이다.

전체 도로개설구간 1.5km 중 서흥동 구간(0.7km)은 2022년 1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23년 5월 현재 공정률 21%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동흥동 구간(0.8km)도 도교육청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녹지공간 도로 편입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중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창환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서귀포시 도심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도심구간 정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복기자

저소득층 자활지원 정기 확인조사

서귀포시, 2분기 786명 대상 내달 9일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업 창업 지원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6월 9일까지 자활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취업·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분기(4-6월) 조사 대상은 17개 읍면동과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27개소에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사업 참여대상자, 차상위자, 사업 종료 후 관리 필요자 등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738명이다. 1분기 조사는 786명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건부수급자들의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조건제시유예자들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확인해 기간 만료자에 대한 자활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차상위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미참여자들에 대한 자활 참여 독려, 자활 참여대상자 중 상담 불응자에 대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분기별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75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나선 바 있다.

올해 서귀포지역의 자활근로사업비는 30억9070만원(국비 90%, 도비 10%)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자활근로자는 읍면동 29명,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90명, 서귀포로움지역자활센터 89명 등 208명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3곳 6월 2일까지 입점자 공모

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2층 빈 점포 3개소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참여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18세 이상 제주도민으로 신청자 본인이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제주지역 전통시장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본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음식점·사무실·작업실·창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점포 공개 추첨은 6월 9일 서문공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신청인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당첨된 입점자는 당첨된 점포만 사용 가능하고 품목은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1포/1,000~2,000평 사용 노동력 70% 절감
*영양제 100종류 *3~8개월 완효성 슈퍼코트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활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1포/150~400평 사용 노동력 50% 절감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 조절

쉽게 높이 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